

한국어 읽기 수업의 질의응답 상호작용에서의 양상 연구

황우가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질의응답 전략
 - 2.2 협력 원리
 - 2.3 예의 원리
3. 양상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 상호작용에 Grice의 협력 원리와 Leech의 예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용론의 협력 원리 (양, 질, 관계, 방식)와 예의 원리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요 자료는 경남 지역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중급 읽기 수업(9차시, 450분, 21명 참여)에서 수집한 녹음 자료와 전사 텍스트이다. 분석 결과, 전 단계에서 양의 격률과 관계의 격률이 핵심 개념 이해와 주제 집중을 높였으며, 인가 격률과 관용 격률이 긍정적 피드백과 배려 차원 언어 전략으로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참여 지속성을 강화하였다. 정보 부족이나 주제 이탈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방법의 격률을 활용해 발화를 명확히 하고 위배를 학

습 기회로 전환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읽기 수업에서 발생하는 질의 응답 담화의 구체적 양상을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해를 높였으며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교실 상호작용 운영에 유의미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질의응답 상호작용, 협력 원리, 예의 원리, 담화 분석

1. 서론

이 연구는 협력 원리 및 예의 원리를 적용하여 한국어 읽기 수업 단계별 질의응답 상호작용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질의응답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상호작용 전략이다. 그런데도 기존 연구들은 주로 원어인 담화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질의응답 교수 전략 모색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화용론적 원리(협력 원리, 예의 원리 등)의 교육적 적용 연구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일부 측면에 대한 단편적인 검토에 그침으로써,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적 제약 및 문화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어 교육에서 읽기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텍스트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재창조하는 인지 과정이다. 따라서 읽기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중 질의응답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으로, 특히 읽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핵심 개념 파악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이인화, 2003; King, 1994). 질문은 글의 구조와 정보 간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상위인지 능력을 증진한다(Hamilton, 1985; Raphael, 1982). 이러한 점에서 질의응답은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학습자의 언어적, 인지적, 화용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키는 중요한 수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Grice(1975)가 제시한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는 대화 참여자들이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따르는 네 가지 대화 격률을 제시하며, 담화의 논리성과 목적 지향성을 설명한다. 또한 Leech(1983)의 예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는 사회적 조화를 고려한 간접성과 배려의 담화 전략을 추가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단일 이론 적용(김종혁,¹⁾ 2008) 또는 비교육적 맥락 분석(백종이,²⁾ 2019; 이경숙,³⁾ 2016)에 치중하였다. 둘째, 이론적 논의(송경숙,⁴⁾ 2002)나 일반적 화행 분석(김서형,⁵⁾ 2013)에 그쳐 교육 현장의 구체적 상호작용을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의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사례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인식하여 이 연구는 한국어 교실 읽기 수업의 실제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의 질문 전략과 학습자 응답이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의 준수와 위

- 1) 김종혁(2008)은 중국어로 이루어진 로맨틱 관계의 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Grice의 협력 원리를 적용하여 간접적 거절 화행을 살폈다. 연구는 특히 '질의 격률' 위반 현상을 통해 여성이 '我從來沒考慮過'처럼 직설적 거절을 회피하며 예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을 밝혔다.
- 2) 백종이(2019)는 『사기』 대화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Grice의 협력 원리를 적용하여 겸양 부사 '竊'과 '伏'의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화자가 격률을 고의로 위반/무시함으로써 피지배층의 전략적 겸손이나 지배층의 권위 강화를 실현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 3) 이경숙(2016)은 TV 시사 토의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Grice의 협력 원리와 Brown & Levinson의 체면 이론을 적용하여 화용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사회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논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격률 위반' 전략을 사용하며, 토의자는 '질의 격률'과 '관계 격률'을 준수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밝혔다.
- 4) 송경숙(2002)은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 중에서 영어 인터넷 릴레이 채팅(IRC)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Grice(1975)의 협력 원리와 Leech(1983)의 예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위반되는지를 살피었다. 또한 Brown & Levinson(1978/1987)의 예의 이론을 통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섯 가지 예의 전략이 사용되는 방식을 고찰했으며, CMC의 익명성, 비언어적 단서 부족 등 특징으로 인해 가상 공동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원리를 위반하고 높은 체면 위협 행위(FTA)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제시했다.
- 5) 김서형(2013)은 공손성이 문법적 표지(높임법)보다 화용적 맥락(역양, 발화 태도, 내용)에 더 크게 의존함을 실증하였다.

반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며 이들이 교육적 목적 달성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읽기 전-중-후 모델 하에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질의응답 전략, 협력 원리, 예의 원리 등 관련 개념들을 상세히 논의한다. 3장에서는 실제 한국어 읽기 수업 현장에 초점을 맞춰,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가 읽기 전-중-후 단계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4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질의응답 전략

질의응답 전략은 읽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핵심적인 교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읽기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하며,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Hamilton, 1985; Wilen, 1991; 박소희, 2009). 질문은 독자가 글을 읽기 전-중-후 단계에서 글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자의 사전 지식과 스키마를 활성화하고 읽기 전략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의응답 전략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Raphael (1982)이 제시한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 전략이 있으며, 이는 질문과 정답 간의 관계에 따라 ‘Right There’, ‘Think and Search’, ‘On My Own’(또는 ‘Author and You’)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전략은 읽기 수업의 세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읽기 전에는 ‘On My Own’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주제를 예측하게 하며, 읽기 중에는 ‘Right There’ 및 ‘Think and Search’ 질문을 통해 텍스트 내 정보의 파악과 통합을 유도하고, 읽기 후에는 ‘Author and You’ 질문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개인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Stewart(1985)는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글쓴이가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점검하는 질문이 중요한 읽기 전략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김동연, 2011 재인용)

〈표 1〉 Stewart 프레임워크

단계	내용
읽기 전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가? • 여러 개념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 자료들은 어떻게 조직하는가? • 이 정보를 알기 위해 다른 것을 알 필요는 없는가?
읽기 중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부분에서 중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앞의 것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글쓴이가 소개하는 새로운 개념은 없는가? • 지금까지 모든 개념들 간의 관계를 관련지을 수 있는가?
읽기 후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은 전체를 이해했는가? • 간단한 요약이나 개요를 정리할 수 있는가? • 장별로 개괄할 수 있는가? • 글의 요점을 열거할 수 있는가? • 정보 중에서 새로운 것, 이미 아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 이 정보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 연구는 Raphael의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 전략과 Stewart의 읽기 단계별 질문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읽기 전-중-후 단계에 맞는 협동적 질의응답 전략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읽기 전 단계에서는 ‘On My Own’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주제를 예측하도록 하며, 읽기 중에는 ‘Right There’ 및 ‘Think and Search’ 질문을 통해 텍스트 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미를 통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Author and You’ 질문을 활용해 학습자가 글 전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2〉 질의응답 전략

단계	내용	교육 목표
읽기 전	내용 연결: 읽을 내용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 내용 예측: 제목이나 표지 등으로 글의 주제나 내용을 미리 짐작하며 읽는 것	배경지식 활성화 주제 추론
읽기 중	세부 사항 추적: 글에 명확히 나타난 사실, 데이터, 행동 등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정보 통합: 글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 상호 작용하며 생각하기: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내용 이해 오류 교정
읽기 후	전체 되짚어보기: 읽은 글 전체를 돌아보며 핵심 내용과 개인적으로 얻은 가치를 정리하는 것 지식 활용 및 확장: 글에서 배운 지식이나 생각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새로운 분야로 넓혀가는 것	전체 구조 파악 비판적 사고 형성 지식 현실 적용

다음 절에서는 이 전략이 협력 원리 및 예의 원리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협력 원리

Grice(1975)의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협력적인 결과를 조장하

기 위한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위한 지침이 된다. Grice는 협력원리를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 그리고 방법(manner)의 네 가지 격률(maxim)로 제안하면서, 네 가지 격률을 아홉 개의 하부 격률로 세분화하였다. (송경숙 옮김 2002: 644-645)

Maxim of quantity

1.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대화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2.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제공된 정보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Maxim of quality

1.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대화자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2.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

Maxim of relation

1. Be relevant.
대화자가 기여하는 몫을 관련성 있게 하라.

Maxim of manner

1.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불명료함을 피하라.
2. Avoid ambiguity.
모호한 중의성을 피하라.
3. Be brief.
간결해야 한다.
4. Be orderly.
순서에 맞게 조리가 있어야 한다.

(Grice1975:45-46)

Grice는 담화 참여자들이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의 각 격률을 준수할 때 원활한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격률들의 위반은 오해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단절 현상

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은 학습 내용의 전달 및 이해라는 명확한 소통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협력 원리는 교수-학습 과정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 교사와 학생은 질문-응답 과정에서 이 원칙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격률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적용 양상을 보인다. 첫째,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은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의 양이 학습 목표 달성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되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은 교사가 제공하는 교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강조한다. 셋째,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은 교실 내 질문이 교과서 내용과 수업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은 교사의 질문 언어가 간결하고 명확하여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예의 원리

Leech의 예의 원리에 의하면, 의사소통에는 기본적으로 협조적이고 예의를 갖추고 싶어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항상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이다(Leech, 1983:104; Jucker, 1988:378). 그리고 예의가 불균형적(asymmetrical)인 이유는 청자나 다른 삼자에게 예의를 갖춘 것이 화자 자신에게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Leech가 제안하는 예의 원리는 각각 쌍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하부 격률, 요령(Tact), 관용(Generosity), 인가(Approbation), 겸손(Modesty), 동의(Agreement), 그리고 동정(Sympathy)의 격률로 구성된다. (송경숙 옮김 2002: 646-647)

(I) Tact Maxim (in impositives and commissive)

(a) Minimize cost to other

타인에 대한 비용은 최소화하라

- (b) Maximize benefit to other
타인에 대한 혜택은 최대화하라
- (II) Generosity Maxim (in impositives and commissives)
 - (a) Minimize benefit to self
자신에 대한 혜택은 최소화하라
 - (b) Maximize cost to self
자신에 대한 비용은 최대화하라
- (III) Approbation Maxim (in expressives and assertives)
 - (a) Minimize dispraise of other
타인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라
 - (b) Maximize praise of other
타인에 대한 칭찬은 최대화하라
- (IV) Modesty Maxim (in expressives and assertives)
 - (a) Minimize praise of self
본인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라
 - (b) Maximize dispraise of self
본인에 대한 비난은 최대화하라
- (V) Agreement Maxim (in assertives)
 - (a) Minimize disagreement between self and other
자신과 타인 간의 불일치는 최소화하라
 - (b) Maximize agreement between self and other
자신과 타인 간의 일치는 최대화하라
- (VI) Sympathy Maxim (in assertives)
 - (a) Minimize antipathy between self and other
본인과 타인 간의 반감을 최소화하라
 - (b) Maximize sympathy between self and other
본인과 타인 간의 공감은 최대화하라

(Leech, 1983:132).

Leech가 제시한 예의 원리의 하위 격률 가운데 요령(Tact)과 관용(Generosity)은 주로 대화 참여자 간의 이익 분배와 관련된 상황을 보인다. 즉 학생 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교사 자신의 이익(요청의 성공적 수행)을 간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공손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려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가(Approbation)와 겸손(Modesty)은 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학생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때 교사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학습 동기를 높여야 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생의 자존심을 해치므로 지양해야 한다. 동의(Agreement), 그리고 동정(Sympathy)은 화자 자신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학생의 답변이 교사의 기대와 다를 경우에는 완곡한 언어 표현을 통해 이견을 최소화해야 하며, 학생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말할 때는 적절한 공감 표현으로 심리적 지원해야 한다.

3. 양상 분석

이 연구는 2025년 4월 중 경남 지역 소재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진행된 한국어 중급 읽기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당 수업은 총 450분(9차시) 분량으로, 2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습자들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진 해당 수업 녹음은 교사의 사전 공지 하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수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녹음 전사⁶⁾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질의응답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예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의 적용 양상을 탐색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교사, 학습자의 발화 빈도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는 실제 한국어 읽기 수업(중급)에서 녹음 및 전사된 교사-학습자 간 질의응답 상호작용 자료를 바탕으로 Grice의 협력 원리와 Leech의 예의 원리가 읽기 수업의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에 의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용이 학습자의 참여도와 이해도 증진에 어떤 추정 가능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심

6)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전사 기호는 Tannen(1984)의 방법을 근간으로 조위수(2012)가 수정한 전사법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조정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발화 중에는 외국어 사용으로 내용 인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다국적 학습자가 참여하는 실제 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임을 고려하여 데이터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표어(외국말)를 추가하였다. 전사는 다음과 같이 체계로 실시하였다.

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표 3〉 읽기 수업 교사-학생 질의응답 행동 개요

단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전체 ⁷⁾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1	54	31%	31	18%	12	7%	172
2	60	41%	24	16%	5	3%	147
3	27	39%	3	4%	6	9%	68

1) 읽기 전

읽기 전 단계의 핵심 목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텍스트 주제에 대한 예측을 유도하여 본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전사기호	의미
..	휴지(0.5초 미만)
...	휴지(0.5초 이상)
....	휴지(1초 이상)
.....	휴지(1.5초 이상)
.....	휴지(2.5초 이상)
\	하강어조
/	상승어조
↘	하강상승어조
::	모음의 길어짐
#	겹쳐 말하기
()	말투나 상황에 대한 설명
(??)	전사 불가능(잡음이나 미약한 소리)
(외국말)	전사 불가능한 외국어
진한 글씨	강조
oo 또는 ooo	이름

- 7) 〈표 3〉은 세 차례 읽기 수업에서의 교사-학습자 간 질의응답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빈도는 전사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 및 이에 대한 직접 응답을 하나의 단위로 정의하여 수작업으로 코딩하였으며, 각 수업 내 전체 질의응답 횟수 대비 단계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교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탐색적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끌어내고 이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제한된 정보 제공을 통한 탐색적 질문하였다.

대화1:

T: 오늘 공부할 것 2과 외모와 성격입니다. 외모 뭐니까? /

S2: 얼굴

T: 그렇지. 걸로 볼 수 있는 것. 얼굴이나 몸매 등 이런 걸 외모라고 하지요.

교사는 “외모 뭐니까”라는 매우 개방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학습자 S2는 “얼굴”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핵심 개념의 일부를 포착한 부분적 이해를 반영한다. Grice의 협력 원리 중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관점에서 볼 때 해당 답변은 요구되는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교사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지”라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학습자의 응답을 인정한 뒤 “걸로 볼 수 있는 것. 얼굴이나 몸매 등 이런 걸 외모라고 하지요.”라고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대화가 “외모”라는 주제의 정의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둘째,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을 적용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였다. 이는 특히 중급 학습자의 언어적 불안을 완화하여 이후의 수업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습자의 불안정한 응답에 대해 교사는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해당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완전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핵심 개념 도입과 이해에 중점을 둔 교수를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둘째, 구체적 사례와 시각적 단서를 통한 낯선 어휘 도입했다.

대화2:

T: 책 봅시다. 여가 생활 뭐가 있는지 봅시다. 먼저 운동이에요.

이거 탁구입니다. 탁구 뭐예요? / 탁 여러분 탁 무슨 뜻이에요? /

S3: 탁? / 테니스.

T: 테니스? / 테니스 아니야. 탁 뭐야 탁 탁 여러분 '탁' 들어가는
단어 본 적 없어요? /

없다고? / (...) 있잖아. 식탁. 탁 식탁 테이블이에요. 식탁. 구는 뭐
예요? 공이지요. 테이블 위에 공 있어요. 테이블 위에서 똥 똥똥똥
똥똥 하는 거 탁구.

S3: 기숙사에 탁구장 있어요.

T: 탁구장 있는데 탁구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 괜찮아요.
오늘 알았으니까.

낮선 어휘 “탁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처음에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교사는 “식탁”과 “테이블” 등 구체적 사례와 동작을 사용하여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이는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을 준수해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이행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괜찮아요. 오늘 알았으니까.”라는 발화는 관용 격률의 전형적 적용으로 학습자의 지식 부족을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인정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게 했다. 이어 학생이 “기숙사에 탁구장 있어요.”라고 응답한 것은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은 결과로 교사의 설명과 긍정적 태도가 즉각적인 개념 이해와 학습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읽기 전 단계에서 교사는 탐색적 질문과 구체적 사례를 활용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성을 유발하고 문장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읽기 중

읽기 중 단계의 핵심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세부 내용과 구조를 정확

히 이해하도록 돕고, 발생하는 오해나 오류를 신속히 파악하여 조정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학습자의 사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언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는 주로 오류 교정, 주제 회귀, 유머를 활용한 주의 환기라는 세 가지 전략을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를 기반으로 실행하였다.

첫째, 오류 대응 시 설명 중심의 간접적 수정 전략이 두드러졌다.

대화1:

T: 다음 봅시다. ‘여행 가방 끌고 가다’ ‘끌다’ 알아요?/

S2: 아니요::

T: 학생들 가방은 ‘가방을 메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핸드백은 ‘들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 갈 때 가방 있잖아요./ 캐리어. 그 가방은 ‘끌다’ 사용합니다. 다리 아파서 여행 가방 끌고 가는 나를 보자마자 열린 버튼 눌러줬는데 알고 보니 나와 같은 방을 사용할 사람이었다.

학생이 “끌다”라는 동사를 모른다고 답하자, 교사는 “틀렸다”는 직접적 지적 대신 “메다”, “들다” 등 관련 어휘와 비교하여 의미와 용법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이는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을 준수해 발화를 명료화하고 구체적 사물과 문맥을 제시하여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다. 동시에 학생의 체면을 고려해 “모른다”는 응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과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을 활용해 학습자가 오류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 부족을 자유롭게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 오류 교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둘째, 주제 이탈 시 유연한 대응과 주제 회귀가 관찰되었다.

대화2:

T:다 이해하고 있죠?/

S3:선생님. 쉬는 시간이예요.

T:그러네. 잠시만요. 마지막 문단 읽어 보고 쉽시다.

학생의 발화는 교사의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을 위반했지만 교사는 “그러네”라는 응답으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고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과 동의 격률(Agreement Maxim)을 준수하였다. 이어 “잠시만요. 마지막 문단 읽고 쉽시다.”라고 말해 수업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명확히 지시하며 대화를 본래 주제로 되돌렸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수업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도성을 발휘한 것으로 학습자가 교사의 권위를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요청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유머를 활용한 주의 환기 및 간접적 지적 전략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대화3:

T: 오늘은 뭐 씹니까? /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꼈나요?’

S2: 선생님 이거 다른 사람 저한테 호감을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

T: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항상 웃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다 생각해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다.

저 봐:: 지금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 나한테 호감이 없다.\

교사는 줄고 있는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수업 중 설명 내용과 연결된 유머로 부드럽게 주의를 환기하였다. 이는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을 준수해 학습자의 체면을 보호하면서도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을 활용해 부정적 평가를 최소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실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하여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회복시키고 설명 내용을 보다 생생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읽기 중 단계에서 교사는 오류 교정, 주제 회귀, 유머를 통한 주의 환기라는 세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의 전략적 활용은 학습자가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즉각적인 오류 수정과 주제 집중 회복으로 학습 효율성을 높였다.

3) 읽기 후

읽기 후 단계는 텍스트의 전체 구조와 핵심 내용을 종합하고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며 습득한 지식을 실제 맥락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심층 사고를 촉진하는 동시에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 분석 결과, 교사는 요약 능력 강화와 긍정적 강화, 개인적 연계와 응용 질문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첫째, 요약 및 핵심 정보 추출 촉진과 긍정적 강화가 관찰되었다.

대화1:

T: 첫 번째 문단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발을 처음 보고

S4: 못생겼다 왜 그런 사진을 찍냐고 댓글을 달았어요.

T: 댓글 썼어요. 못 생겼다 왜 저렇게 발 사진 찍지 하고 좋지 않은 댓글 달았어요.

근데 이 발이 누구 발인지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

S4: 그 사진 발 사람을 보고 누구인지 알고 그다음에는 와우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했어요.

T: 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발이 왜 아름다워요? 찾아보세요. 이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

S4: 왜냐하면 그 사람 춤을 주고 그렇게 많이 연습해서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T: 네. 잘 이해했네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 여기 정리하면 됩니다.

교사의 질문은 텍스트의 핵심 정보와 문단별 사건을 요약하도록 학습

자를 유도하며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을 충실히 준수하였다. 학생 S4의 응답은 요구되는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이행하였다. 이에 교사는 “네. 잘 이해했네요.”라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학생의 성취를 인정하며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을 적용하였다. 이어 “중요한 내용 여러분 여기 정리하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통해 읽기 후 단계의 목표인 전체 구조 파악과 핵심 정보 정리를 명확히 상기시켰다. 이러한 긍정적 강화와 명확한 지시는 학습자가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수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둘째, 개인적 연계와 응용 질문을 통한 지식 확장이 두드러졌다.

대화2:

T: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도움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누가 가장 힘이 돼요?/

S3: 아빠::

S2: 어 부모님

T: 부모님께서 항상 ‘걱정하지 마. 힘내’ 이렇게 응원,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장 힘이 됩니다.

교사는 텍스트의 의미를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글의 주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은 간결하지만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준수하였고 교사는 이를 수용하고 일반화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읽기 활동이 단순한 정보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장과 확장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읽기 후 단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요약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심화시키고 읽기 경험이 개인적 의미와 연결되도록 하여 학습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였다. 교사의 전략적 질문과 긍정적 피드백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학습자의 장기적 이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어 중급 읽기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 상호작용을 Grice의 협력 원리와 Leech의 예의 원리의 틀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읽기 전-중-후에서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는 학습자의 배경지식 활성화, 텍스트 이해, 비판적 사고 촉진이라는 단계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협력 원리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과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은 전 단계에 걸쳐 두드러지게 실현되었다. 교사는 학습자의 짧고 간결한 응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여 의미 이해를 확장했으며 대화의 주제 연관성을 유지하여 수업의 목표 달성도를 높였다.

둘째, 예의 원리 중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과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은 학생의 응답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오답 및 주제 이탈 상황에 대한 배려 차원 언어 전략으로 구현되었다. 교사는 유머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체면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반면 겸손 격률은 교사의 수업 주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화에서는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위배나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 위배가 빈번히 나타났다. 교사는 이러한 위배 상황에서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을 준수하여 발화를 명확하게 재구성하고,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과 인가 격률(Approbation Maxim)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체면을 보호하며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였다.

셋째, 교사의 전략적 언어 사용은 격률 준수뿐 아니라 위배 상황에서도 학습 손실을 최소화하며 오히려 학습 효과로 전환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가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의 핵심적 원리임을 보여주며 수업 내 질의응답 전략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수업 내 상호작용의 실질적 교육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 자료가 교실 담화 전사에 한정되어 있어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에서 격률 준수와 위배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학습 수준과 교과 유형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질의응답 전략의 적용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함으로써 협력 원리와 예의 원리를 교수-학습 설계에 통합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연(2011). “글 구조 도식화와 질의-응답 전략이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서형(2013). 한국어 화행에서 공손성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61, 123-143쪽.
- 김중혁(2008). 중국어 담화의 대화함축 분석, <중국학논총> (25), 107-118쪽.
- 박소희(2009).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른 교사질문생성과 학생질문 생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백종이(2019). 대화협력원리를 통한 表謙副詞 “竊”과 “伏” 고찰,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660, 93-112쪽.
- 송경숙(2002).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에서의 협력원리와 예의원리, <새한영어문학> 44(2), 641-660쪽.
- 오혜정(2014). “질문 대답분류법(QAR) 전략을 활용한 독서치료수업이 학습부진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과 읽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숙(2016). 시사 토의 담화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자의 관여 전략과 토의자의 협력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9(0), 121-160쪽.
- 이인화(2003). 질문하기 전략이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조위수(2012).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과 교수 방안 연구, 부산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3:

- Speech Acts, ed. P. Cole & J. Morgan.
- Hamilton, R. J.(1985). A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djunct questions and objectiv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 47-85.
- Leech, G.(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Raphael, T .E.(1982). Improving question-answering performance through Instruc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15303)
- Wilens, W. W.(1991). *Questioning skills, for teachers(4th ed.)*.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필자 소개

성 명 황우가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wjh0818-hyj@naver.com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Question-and-answer Interaction in Korean Reading Classes

Huang, Yu-jia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rice's cooperative principle and Leech's courtesy principle are applied to question-and-answer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in Korean reading classes. To this end, the discussion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 (quantity, quality, relation, and manner) of pragmatics and the courtesy principle. The main data were audio recordings and transcripts collected from an intermediate reading class (9 sessions, 450 minutes, 21 participants) at a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in Gyeongnam Provinc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axims of quantity and relation increased core concept understanding and topic focus in all stages, and the maxims of authorization and idiomatic maxims strengthened learner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ontinued participation through positive feedback and considerate language strategies. When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or the topic deviated, the teacher used the maxim of method to clarify the utterance and turned the violation into a learning opportunity.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specific aspects of question-and-answer discourse that occur in reading class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and courtesy, thereby enhancing understanding and providing meaningful practical implications for operating efficient classroom interactions that support the development of learners' pragmatic abilit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question-answer interaction,
Cooperation principle, Politeness Principle, discourse analysis

투고일 2025. 06. 10 / 심사일 2025. 07. 13 / 게재확정일 2025. 07. 21